

광주가 기록한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 이야기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단행본 '뽕을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 발간 12명 광주시민 구술 채록 및 집필 참여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여성 생애구술사의 첫 기획으로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6인의 구술채록을 담은 '뽕을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를 발간했다.

이 책은 '광주시민이 기록하는 광주여성의 역사'를 취지로 재단이 추진해온 지역여성사 발굴 및 아카이빙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방직공장의 노동경험을 들려준 구술자 고인선, 노미례, 김옥희, 김복희, 김은경, 정미숙은 1935년생(88세)부터 1982년생(41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다. 1953년 전쟁 후에 방직공장에 입사한 것을 시작으로 임동 일신방직이 가동을 중단하기 직전인 2019년까지 근무하는 등 광주 방직공장의 역사와 함께 한 이들도 있다.

이들은 방직공장의 삼고대와 철야 작업, '내가 기계인지 기계가 나인지' 모를 정도로 속과의 전쟁을 벌였던 작업장,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가 잠깐의 휴식과 동료들과의 수다를 통해 내일을 버틸 힘을 얻었던 기숙사 생활 등 공장의 노동 경험을 가감 없이 구술하고 있다.

책가방 대신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던 이의 서러운 세월이 불쑥 젖어들기도 하고, '공순이'로 놀림받으면서도 노동을 통해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사실에 뿌듯함이 솟아 오르기도 한다. 이들에게 방직공장은 가족의 생계비와 동생들의 학비가 나오는 소중한 일터이자, '지금도 온몸에 숨통치가 달라붙는 꿈을 꾸는' 지독한 노동의 공간이었고, 내일을 위해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곳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광주여성들이 감내해온 노동의 시간들,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어머니와 자매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수행

1961년 4월 전남방직 주식회사는 일신방직주식회사와 전방주식회사로 분할됐다. <광주시청 제공>



해온 주체적인 역할과 그에 대해 여전히 충분한 의미 부여가 이뤄지지 못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광주여성의 역사이고 광주의 역사인 만큼 잊혀지고 사소한 기억이 기록되고 역사가 된다면 광주 공동체의 역사쓰기는 보다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직공장 노동자들의 구술채록과 집필은 2021년 구술채록학교를 통해 광주여성구술채록단으로 위촉된 12명의 광주시민이 참여했다.

광주여성구술채록단으로서 이 작업에 참여한 김유정 씨는 "구술생애사 작업은 글쓰기나 인터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대한 관여이자 관심어린 행위이며 동시에 나에 대한 응원메시지 보내기가 아닐까 싶다. 타인의 삶의 궤적은 결국 듣는 사람, 보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고 위로이기 때문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작업은 비가시화된 여성의 경험을 기록하고 역사화하는 일

이며, 구술자와 채록자, 독자 모두에게 새로운 관점과 연대를 끌어올리는 일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오는 9월 광주여성생애구술 집담회를 통해 구술자와 채록자, 광주시민이 만나 연대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2023년에는 전통시장 여성상인 구술채록을 단행본으로 엮는 작업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구술생애사 발



2021년 12월 광주여성구술채록단이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를 탐방하는 모습. 사진 임미숙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광주여성구술채록단의 방직공장 부지탐방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간과 온라인 아카이빙 등을 통해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민이 시대의 목격자이자 역사기록의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최명진기자



장애여성 일곱 명의 삶의 우여곡절이 담긴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도서출판 글올나는집에서 '기록의집' 시리즈 첫 번째 도서로 펴낸 '나에게 새로운 언어가 생겼습니다'다.

이 책은 실로암사람들과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에서 5개월 동안 진행한 '장애여성의 자기 역사 쓰기' 수업의 결과물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소수자의 삶을 대변해 증명하는 사료이기도 하다.

일곱 명의 저자들은 여성이어서, 장애인이

나에게 새로운 언어가 생겼습니다

장애여성 7명이 몸으로 쓴 손바닥 에세이

라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로 받아온 차별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 제목인 '나에게 새로운 언어가 생겼다'는 최송아 씨의 글에서 비롯됐다. 송아 씨는 자립생활을 하며 누워서 먹던 밥을 휠체어에 앉아서, 타인이 관리해주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게 됐다.

특히,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도 읽고 쓰지 못했던 그는 평생교육원에서 문

해교육을 받은 후 주위 사람들과 문자로 소통하게 됐다. 송아 씨에게 한글은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가 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부터 유년 시절 불의의 사고를 겪어 후천적 장애를 겪게 된 사람까지, 서른부터 예순까지, 가정을 떠나온 사람부터 제 손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람까지,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의 일상은, 잊힌 존재가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자신만

의 새로운 언어로 거듭났다.

글을 따라 이들의 생애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 불편하지만 딱히 다들 것도 없는 인간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시선에서 한발짝 물러나면, 벗어날 수 없는 불행은 인정하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이들의 밝은 미소가 보인다.

김용목 실로암사람들 대표는 "저자들은 송기역 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 교육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긴 사색의 과정을 거쳐 생생한 언어를 길어 올렸다"며 "이 책이 여성으로, 장애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비혼으로 살아가는 작가들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새로 나온 책



▲실패를 해낸다는 것=최재천 저자

이 책은 인간을 '실패하는 동물'이라고 명명한다. 살면서 실패를 한 번도 겪지 않고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보다 실패하는 사례와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유독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만 과도하게 찬양하고 실패는 금기시하며 감추려 드는 것일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책은 각종 실패 사례를 분석하며 성공이 아닌 실패가 인간의 본질이라 규정하고, 실패를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과 사회의 핵심 과제임을 밝힌다.

/민음인·1만4천원



▲바로 가는 이야기는 없다네=유진수 저자

지난해 '세종문학'으로 등단한 유진수 시인이 첫 시집 '바로 가는 이야기는 없다네'를 펴냈다. 어렵지 않게 술술 읽히는 시구 속에 웃음이 꽃, 하고 터지는 해학이 돋보인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삶의 이면을 간파해 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와우/뭘 모르는 소리 마쇼/집이 아니라 집이오'라는 '달팽이의 항변'은 '집이 집이고/집이 집인/세상'에 대한 깨달음의 소산이자, 아무리 힘겨운 삶이라도 긍정하려는 의지의 소산이다. 유 시인은 세상에서 바로 가는 이야기가 없다고 믿는다. 그에게 세상이란 '돌고 돌아 길 너머 길이 되는' 완행열차와 같다.

/문학들·1만원



▲판생각=박찬휘 저자

사소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엉뚱하고 독특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디자이너 박찬휘의 일상기록 '판생각'이 출간됐다. 디자인은 우리 삶 곳곳에 녹아 있다. 매일 드나드는 건물의 회전문, 베란다 구석에 놓인 세탁기, 분신과도 같은 스마트폰까지, 어느 하나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중에서도 커다란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일은 작은 요소 하나하나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이 책을 통해 작가의 섬세하고 별난 시각을 빌려 세상을 바라보면, 사소한 요소에 집중하고 골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의 탁월한 디자인에 어떻게 보탬이 될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싱크·1만6천800원



▲박정선의 밤 이야기=박정선 저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CTS기독교방송 라디오JOY 인기 방송의 사연이 드디어 책으로 출간됐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CTS기독교방송 '사연 토크쇼 박정선의 밤 이야기'에 소개된 글들을 모은 '박정선의 밤 이야기'는 청취자들이 살면서 울고 웃고 사랑했던, 현장감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은 첫 번째 사연 모음집이다. 모두 5개 파트, 60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박정선의 밤 이야기'는 각자의 삶이 다양한 사연으로 이어지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특히 이 책은 정해진 형식 없이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청취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라 누구나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BG북갤러리·1만3천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